

동서한방병원에 來院한 鹿茸加味劑을 복용한 외래患兒의 임상적 연구

신지나* · 신원규*

*동서 한방 병원 소아과 교실

The change of clinical symptoms of children patients using herbal medication combined with Cervi cornu parvum in Dong-seo oriental Hospital

Ji-Na Shin · Won-Gyu Shin*

*Dept. of pediatrics of Dong-Seo oriental hospital

Background and method : The Cervi cornu parvum for children patients have been widely used nowadays; however, there have been no reports about the children patients' conditions and the parents' responses. To investigate these things, the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children patients(the ages between 0 and 15) who took the herbal medication combined with Cervix cornu parvum and their parents from January 1, 2000 to June 31 at the Dong-seo oriental Hospital.

The chief complaints such as common cold, dyspepsia of using Cervi cornu parvum were divided into five categories and the changes were observed, scoring each stages. Besides, the quantity of taking herbal medication combined with Cervix cornu parvum, the expectancy, the satisfaction, the continual favor were included in the questionnaires.

The result :

1. The trackable sample was 53: male infants 34(64.2%), female infants 19 (35.8%). There is no differences between genders in the treating results. The treating results were increased after taking herbal medication combined with Cervi cornu parvum
2. When age is grouped by three categories(0-1, 2-6, 7-14 ages), the statistics shows that the treating results have no differences between each group.($P > 0.05$) Regardless of the ages, the treats have correlated.($P < 0.05$)

3. When each symptoms made treated one case are analyzed, there have been correlations between the taking herbal medication combined with Cervi cornu parvum and recovery.(P < 0.05)
4. The treating result have not affected by the expectancy.(P > 0.05) Each group(good, moderate, poor) showed the recovery after the treatment.(P < 0.05)
5. When the satisfaction divided into three groups(good, moderate, poor) there existed differences between groups.(P < 0.05) Especially, the group with high expectancy increased the treatment.
6. About the recognition of herbal medication combined with Cervi cornu parvum is like this: the health refreshment, ordinary taking whenever turning-point of seasons comes, treatment, disbelieving the overdose of herbal medication combined with Cervi cornu parvum, disbelief about the security of the medicine such as fake medicine, mad cow diseases, the imported medicine, ignorance about the way of taking the medicine.

I. 서 론

虛弱兒란 先天의 粿氣不足과 後天의 摄生의 질
못으로 氣血이 충실하지 못하고 正氣가 허약한 체
질을 의미하며²⁾. 五臟 辨證 분류에 의한 건강증진
에 노력하고 있으며¹⁹⁾. 최근 소아과 영역에선 허
약아에 대한 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건강증진
방법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되고 있으며, 소아 補
劑에 녹용을 사용하는 예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15,20,21)}

녹용의 성미는 甘鹹溫하고, 肝腎經으로 가며,
補腎助陽하는 효능이 있고 補督脈, 助腎陽, 生精
髓, 強筋骨의 효능이 있고 虛勞瘦瘠, 血虛眩暉, 精
神倦乏, 腰膝痠軟, 小便數利 등의 一切 虛損 질환
에 多用되고 있고 특히 소아의 發育不全 및 齒遲,
行遲 등에 사용하고 있다¹⁾. 임상적으로 소아의 補
劑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부위별로 上帶가
다용되는 상태이다.

그러나 속설에 소아 시기에 녹용을 투여하면
지능저하나 과체중아를 유발시킨다하여 녹용 사
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있으나 이에 대한 실

험적 연구는 진행중이나 임상적인 연구는 없는 실
정이다¹⁶⁾.

소아에게 鹿茸을 투여한 후 학습과 기억에 관
한 연구로는 鄭의 鹿茸과 補兒湯 加 鹿茸을 이용
한 연구³⁾, 禹와 李의 調胃升清湯을 이용한 연구⁵⁾,
姜의 香砂六君子湯⁶⁾을 이용한 연구 등이 있었고,
이 이외 崔와 李와 金의 發熱상태에서 투여된 鹿
茸과 小兒補血湯 加 鹿茸이 발열 양상의 변화 및
학습에 미치는 영향⁷⁾, 吳와 金의 부위별 鹿茸이
흑생종 유발생육의 종양억제와 면역기능에 미치
는 영향⁸⁾ 등 녹용을 이용한 실험논문이 많이 보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논문이 많이 보고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녹용가마제를 사용한 후 患兒의
상태 변화나 보호자의 호응도에 대한 조사 보고가
없음에 착안하여 동서한방병원에 來院한 患兒 및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추적 조사로 녹
용을 복용 후 임상상 변화 양상 및 정도를 알아보
아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관찰대상 및 방법

1) 관찰대상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6월 31일까지 본원 소아과 外來 來院 患者 중 0-15세의 녹용가미제를 복용한 환자로 녹용의 복용 첨수나 복용 기간은 배제한 상태로 경과추정기간은 이 후 1년 3개월에서 1년 6개월 후로 하였다.

2) 관찰방법

저자가 직접 작성한 설문지로 主訴症을 易感冒, 食欲不振, 기타로 대략 분류하고, 이에 대한 정도를 5단계로 나누어 1년 내내 질병에 이환되지 않는 경우를 매우 양호, 1년에 1/4분기 정도만 질병에 이환되어 있는 경우를 양호, 1/2분기 동안 질병에 이환되어 있는 경우를 보통, 3/4분기 정도 질병에 이환되어 있는 경우를 불량, 1년 내내 질병에 이환되어 있는 경우를 매우 불량으로 나누고, 녹용가미제를 복용한 후 변화양상을 5단계로 나누어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매우 호전, 50%정도 시기상 정도상 호전된 경우를 호전, 치료 전과 변화가 없거나 50%이하의 호전도를 보인 경우를 보통, 치료시보다 나빠졌으나 이환율이 50% 이내인 경우를 악화, 질병 이환율이 50%더 증가한 경우를 매우 악화로 나누어 그 변화를 점수로 환산하여 관찰하였다. 主訴症 이외에 전반적인 건강 상태 변화로 체중증가, 신장 증가, 질병에 대한 잊은 유병률(虛弱 상태 개선), 지적 능력(기억 및 학습의 변화) 및 집중력 강화 등을 조사하여 보았으며, 녹용의 복용 첨수¹⁰⁾와 보호자의 녹용에 대한 기대도 및 만족도, 이 후 녹용에 대한 지속적인 호응도를 살펴보았고 이 외 기타 녹용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해 보았다.

통계처리는 SAS로 하였고, significance는 0.05이하로 하였다.

III. 결 과

설문지에 응한 경우는 53명으로 남아 34명(64.2%), 여아 19명(35.8%)이다.(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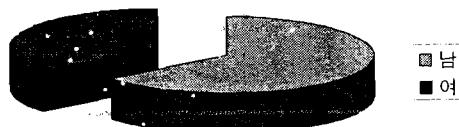


Fig 1. 남여별 분포

연령에 따른 복용 환자의 분포도를 보면, 1세 11명, 2세 4세 각 7명, 3세 5세 각 6명, 0세 6세 13세 각 3명, 8세 및 9세 각 2명, 7세 및 11세 각각 1명의 분포를 보였다.(Fig.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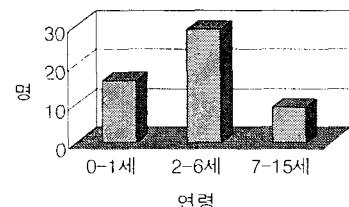


Fig 2. 연령에 따른 분포

主訴症은 易感冒(20명, 28.2%), 食欲不振(20명, 28.2%), 喘息·咳嗽·鼻漏·鼻塞·衄血(11명,

15.5%), 피로 및 下肢痛·성장저하·眩晕·腦性麻痺(7명, 9.9%), 惡心·便秘·腹痛·易滯(4명, 7.0%), 多汗·盜汗(4명, 5.6%), 驚氣·口舌 糜爛(2명, 2.8%), 胎熱, 夜尿症(각각 1명, 1.4%) 순으로 나타났다.(중복 대답)(Fig.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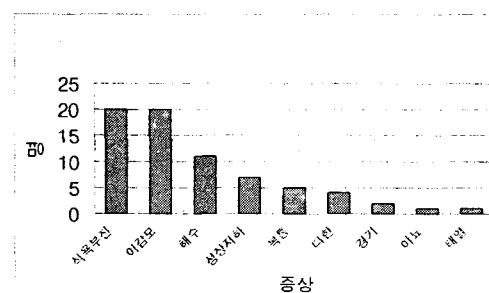


Fig. 3. 증상에 따른 분류

主訴症의 치료 전 상태는 매우 양호 0명, 양호 0명, 보통 13명, 불량 49명, 매우 불량 9명으로 나타났으며, 치료 후 상태의 변화는 매우 호전 12명, 호전 24명, 보통 28명, 악화 7명, 매우 악화 0명으로 응답하였다.(중복 대답)(Fig.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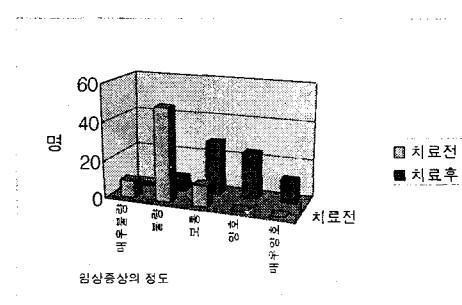


Fig. 4. 증상의 치료전과 치료후의 변화

주소 증상의 변화를 하나로 포괄하여 통계처리하였을 때 P-value는 0.05이하로 통계상 의미있는 변화를 보였으며, 소분류로 나누어 통계처리하였을 때 食欲不振, 易感冒, 咳嗽 등, 多汗 등의 분류

에서 P-value는 0.05이하로 유의성 있는 변화를 보였다.(Table 1, Table 2)

Table 1. Statistic significance for total symptom

N	Mean	Std Dev	P-value
71	1.52	1.16	0.0001

Table 2. Statistic significance for individual symptom

Symptom	N	Mean	Std Dev	P-value
Dyspepsia	20	1.85	1.04	0.0001
Cold	20	1.75	1.07	0.0001
Cough etc.	11	1.18	1.40	0.019
C.P. etc.	7	0.71	0.95	0.094
Abdominal pain etc.	5	1.80	1.48	0.053
Sweat etc.	4	1.25	0.50	0.0154
Convulsion etc.	2	1.50	2.12	0.50

T-test상 男女 두 집단의 P-value는 0.40으로 통계학적 유의성이 없었으며, 치료 전, 후의 P-value는 모두 0.05이하로 男女집단 모두 치료 상유의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Table 3)

Table 3. Statistic significance for Sex

Sex	N	Mean	Std Dev	P-value
Female	25	1.68	1.14	0.0001
Male	46	1.43	1.17	0.0001

연령을 3집단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T-test상 P-value는 0.54로 집단간 치료효과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치료 전, 후의 P-value는 모두 0.05이하로 연령에 상관없이 치료상 유의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4)

Table 4. Statistic significance for Age of 3 group

Age	N	Mean	Std Dev	P-value
0-1세	20	1.50	1.19	0.0001
2-6세	40	1.63	1.10	0.0001
7-14세	11	1.18	1.33	0.014

주소증 이외의 체중증가, 신장 증가 및 협증력 강화, 질병에 대한 잊은 유병률 감소, 지적 능력 상승의 변화 양상을 호전, 여전, 악화로 나누어 이들의 관계를 보면 호전 34명(50.7%), 여전 33명(49.3%), 악화 0명(0%)으로 나타났다.

녹용의 복용횟수는 10세 이하의 경우 연령과 같은 횟수를 복용하였고, 10세 이상에서는 10회를 복용하였다.

부모님들의 녹용에 대한 기대도에 있어 좋을 것으로 기대한 경우가 31명(58.5%),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은 경우가 18명(34.0%), 보통인 경우 4명(7.5%)으로 나타났으며 녹용의 효과에 대해 별 다른 기대치를 보이지 않은 경우는 권유에 의해 먹었다던가(2명), 남들이 먹이니까 따라서 먹인다던가, 수년 후나 수십 년후 나중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각 1명)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녹용가마제를 복용한 후 만족도는 좋은 편이다(우수)가 20명(37.7%), 기대했던 정도이다(보통)가 19명(35.8%), 기대만큼 좋지 않다(불량)가 14명(26.4%)으로 나타났다.(Fig.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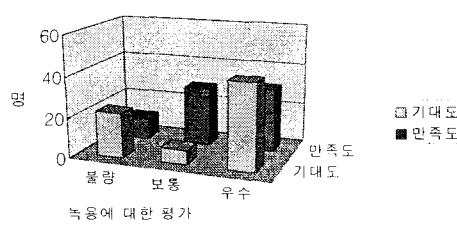


Fig 5. 기대도와 만족도의 분포

기대도에 따른 3집단간 T-test결과 P-value는 0.16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없었으며, 각 집단의 치료 전, 후의 P-value는 모두 0.05이하로 기대도에 상관없이 치료효과가 상승됨을 알 수 있다.(Table 5)

Table 5. Statistic significance for Expect

Expect	N	Mean	Std Dev	P-value
Good	42	1.33	1.18	0.0001
Moderate	7	1.42	0.53	0.0004
Poor	22	1.90	1.19	0.0001

녹용 가마제 복용 후 만족도에 따라 세 집단을 분류하여 보았을 때, T-test결과 P-value는 0.002로 통계학상 유의성을 보여 집단간 치료효과에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치료평균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Table 6)

Table 6. Statistic significance for Satisfaction

Satisfaction	N	Mean
Good	31	2.03
Moderate	29	1.24
Poor	11	0.81

지속적인 녹용 복용에 대하여 1년에 2회 정기적으로 복용하겠다는 경우 20명(37.7%), 1년에 1회 복용하겠다는 경우 14명(26.4%), 건강 증진이 필요한 경우만 사용하겠다는 경우 12명(22.6%). 사용하고 싶지 않다는 경우 7명(13.2%)의 양상을 보였다.(Fig.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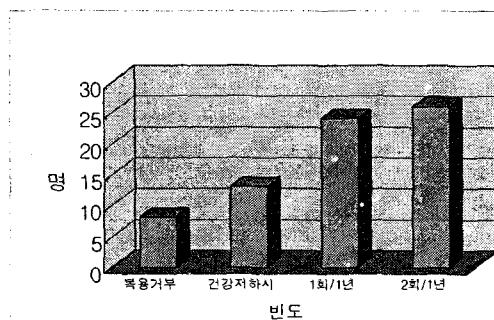


Fig 6. 지속적인 녹용복용

기타 소아기 녹용의 복용에 대해 허약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먹이고 싶어하는 경우(3명), 환절기마다 먹인다는 경우(1명), 치료약의 측면에서 복용하고 싶다는 경우(1명), 어릴 때 보약을 많이 먹이면 좋지 않다는 속설을 들은 경우(1명), 1년에 2회 이상 먹이면 좋지 않다는 속설을 들은 경우(1명), 녹용의 복용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먹이지 못한 경우(1명), 수입산 약재에 대한 불신감을 가진 경우(1명), 광우병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불신하는 경우(1명) 등으로 녹용에 대하여 치료 차원적인 개념보다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보약으로서의 인식이 보였으며, 녹용의 과다 복용에 대하여 부정적인 속설을 믿는 경우 및 녹용 복용 방법과 시기에 대해 무지하여 사용을 꺼리는 경우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유통되는 녹용에 대하여 불신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IV. 고 찰

성장이란 양적으로 증가하는 과정으로 신장, 체중, 기관의 크기의 증가를 의미하며, 성장에 관여하는 요인은 유전과 환경이며, 유전에는 인종, 민족, 가계, 연령, 성별, 염색체 이상, 선천성 대사이상이 되고, 환경에는 외부적 요인으로 사회, 경제

적 요인, 신체적 환경, 계절 심리적 요인, 운동 및 신체적 자극, 영양, 질병 등이 있다. 소아의 성장과 발달은 외부적으로는 적절한 영양 공급과 내부적으로는 호르몬의 복합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런 외부적 내부적 작용기전 중 한가지라도 이상이 생기면 정상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¹⁴⁾.

虛弱兒란 先天的 粿氣不足과 後天의 摄生의 잘못으로 氣血이 충실하지 못하고 正氣가 허약한 체질을 의미하며, 연령에 따라 정상적인 양적 질적인 성장을 보이지 않는 상태로 볼 수 있다¹⁹⁾.

최근 한방에서는 五臟辨證 분류에 의한 성장장애나 허약아에 대한 활발한 진료를 하고 있으며 이를 분류해 보면 肝系虛弱兒는 근육 관절의 發育不振인 경우, 心系虛弱兒는 잘 놀라거나 예민한 성격을 가진 경우, 脾系虛弱兒는 食欲不振, 잦은 소화기 질환을 앓는 경우, 肺系虛弱兒는 易感冒, 肺炎, 기관지, 편도질환을 자주 앓는 경우, 腎系虛弱兒는 근골격계질환에 자주 아환되거나 五遲五軟을 보이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다^{15,21)}.

小兒의 生理는 臟腑嬌嫩하고 形氣未充한 상태이다.

肺는 一身之氣를 주관하고 腎은 先天之本이며, 脾는 後天之本으로 肺, 脾, 腎이 가장 부족하기 쉽다. 소아의 成長發育과 抗病能力, 骨髓, 髮, 耳, 齒 등을 모두 腎과 관계 있으며 소아의 腎氣가 未充한 것을 腎常虛라고 하였다. 소아의 血氣, 營衛의 根源, 肌肉의 充滿, 肢體가 건강한 것은 모두 脾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소아는 부단히 성장발육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므로 生氣蓬發하나 영양물질에 대한 수요가 많으나 비위의 기능이 아직 왕성하지 못하므로 소화기 질환이 많이 보이며, 薄皮弱肉하여 衛外의 기능이 未固하고 외계에 적응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서 邪氣가 쉽게 침범하

여 호흡계 질환이 잘 병발된다^[17,18].

한의학에서 소아의 성장장애에 대한 원인을 先天의 요인과 後天의 요인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는데 “腎爲先天之本”이라하여 腎藏精, 主骨, 生髓, 腦爲水之海에 두고 “脾爲後天之本”이라 하여 脾主肌肉, 主四肢, 氣血生化之源에 근본을 두고 있어, 腎氣가 충실하고 脾氣가 健運하면 생장 발육이 양호한 반면, 先天不足과 後天不足이 생기면 생장발육에 장애를 초래하여 체중, 신장, 치아발생, 지능 등 여러 방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으며,^[19] 이러한 성장 장애에 관한 문헌적 고찰 및 조사는 金^[11] 및 金과 李^[12], 장과 金^[24]의 논문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지력에 관한 金^[13]의 논문을 살펴보면 精氣神의 작용으로 생명활동의 기본물질은 精이며 동력은 氣 발현은 神이 된다고 하였으며, 기억과 주의력 집중력에 대하여 五臟의 기능에 배속시켜 설명하였으며, 기억이 “心有所憶 為之意”的 인지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였으며 한의학적 지력증진의 치료방법으로 養心血 理脾土 化痰 寧神 補心腎 大補氣血의 방법이 있다고 하였다.

金^[9]은 소아의 기억력과 학습능력 발달을 한의학적으로 고찰한다면, 腦의 기능은 心에서 담당하며 모든 생명활동 및 정신활동은 心이 주관하여, 神은 감정을 총괄하며, 정신활동을 조절하는 작용을 하므로 神을 자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精은 생명활동의 근본이므로 기억력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精을 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성장 및 지력증진에 精氣神이 고루 필요한 상태인데 先天의으로 부족함이 있더라도 後天의인 영양 물질의 충분한 보충이 있다면 소아의 발육은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虛弱 疾患 및 成長發育에 鹿茸을 이용한

補劑는 다양하며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녹용의 효능은 性이 溫하고 味가 甘鹹하여 肝腎二經을 峻補하는 요약이 된다. 腎陽을 強壯하게 精血을 補益하며 筋骨을 强하게 하는 良藥이 되며 아울러 督脈을 補하여 衝任脈을 堅固하게 한다. 모든 腎精不足과 精血虧虛 및 衝任脈이 不固한 痘症에 응용하여 좋은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소아기에 녹용을 복용하면 자능저하나 과체중아를 유발시킨다는 속설이 있어 患兒의 보호자는 녹용의 복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대한 반박이 裏의 논문^[16]에 보고되어 있으나 실험적 연구는 진행적이나 임상적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녹용을 사용한 후 患兒의 상태변화나 보호자의 호응도에 대한 보고가 없음에 착안하여 동서한방병원에 來院한 小兒 患兒 및 부모 대상으로 추적 조사하여 녹용을 복용 후 변화 양상 및 변화 정도를 알아보아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V. 결 론

동서한방병원에 내원하여 녹용가미제를 복용한 소아과 외래 환아를 설문지를 통한 임상적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추적 조사 대상은 53명으로 남아 34명(64.2%), 여아 19명(35.8%)이었다.

T-test상 男女 두 집단의 P-value는 0.40으로 남여간의 치료 효과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치료 전, 후의 P-value는 모두 0.05이하로 男女집단 모두 치료 효과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 연령에 따른 복용 환아의 분포를 보면, 1세

11명, 2세 4세 각 7명, 3세 5세 각 6명, 0세 4명, 6세 13세 각 3명, 8세 및 9세 각 2명, 7세 및 11세 각 1명이었다.

연령을 3집단(0-1세, 2-6세, 7-14세)으로 나누어 통계처리 하였을 때 T-test상 P-value는 0.54로 집단간 치료효과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치료 전, 후의 P-value는 모두 0.05이하로 연령에 상관없이 치료 상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主訴症의 유형은 易感冒(20명, 28.2%), 食欲不振(20명, 28.2%), 喘息·咳嗽·鼻漏·鼻塞·衄血(11명, 15.5%), 피로 및 下肢痛·성장저하·眩暈·腦性麻痺(7명, 9.9%), 惡心·便秘·腹痛·易瀉(4명, 7.0%), 多汗·盜汗(4명, 5.6%), 驚氣·口舌糜爛(2명, 2.8%), 胎熱·夜尿症(각각 1명, 1.4%) 순으로 나타났다.(중복 대답)

4. 主訴症의 치료 전 상태는 매우 양호 0명, 양호 0명, 보통 13명, 불량 49명, 매우 불량 9명으로 나타났으며, 치료 후 상태는 매우 호전 12명, 호전 24명, 보통 28명, 악화 7명, 매우 악화 0명으로 응답하였다.

5. 주소증상의 변화를 하나로 포괄하여 통계 처리하였을 때 치료에 유의성이 있었으며,(P-value <0.05) 소분류로 나누어 통계 처리하였을 때 食欲不振, 易感冒, 咳嗽 등, 多汗 등의 증상에서 치료 시 유의성 있는 변화를 보였다.(P-value <0.05)

6. 주소증 이외의 체중증가, 신장 증가 및 집중력 강화, 질병에 대한 잦은 유병률 감소, 지적 능력 상승의 변화 양상을 호전, 여전, 악화로 나누어 이들의 관계를 보면 호전 34명(50.7%), 여전 33명(49.3%), 악화 0명(0%)으로 나타났다.

7. 녹용의 복용횟수는 10세 이하에서는 연령에 따른 횟수를 복용하였다.

8. 부모님들의 녹용에 대한 기대도에 있어 좋을 것으로 기대한 경우가 31명(58.5%),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은 경우가 18명(34.0%), 보통인 경우 4명(7.5%)으로 나타났다.

통계처리상 기대도에 따른 집단간 P-value는 0.16으로 치료효과가 기대치에 받지 않음을 알 수 있고, 각각의 세 집단은 기대도에 상관없이 치료 후 치료효과가 상승됨을 알 수 있다.(P-value <0.05)

9. 녹용에 대한 만족도는 좋은 편이다가 20명(37.7%), 기대했던 정도이다가 19명(35.8%), 기대 만큼 좋지 않다가 14명(26.4%)으로 나타났다.

녹용복용 후 만족도에 따라 3집단을 분류하여 보았을 때, P-value는 0.002로 집단에 따라 치료 반응차이가 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치료 평균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10. 지속적인 녹용 복용에 있어 1년에 2회 정기적으로 복용하겠다는 경우 20명(37.7%), 1년에 1회 복용하겠다는 경우 14명(26.4%), 건강 증진이 필요 한 경우만 사용하겠다는 경우 12명(22.6%), 사용하고 싶지 않다는 경우 7명(13.2%)으로 나타났다.

11. 녹용에 대한 인식은 건강증진(3명), 환절기에 정기적인 복용, 치료약(각각 1명)등을 목적으로 복용하겠다는 경우, 녹용을 과다 복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속설을 믿는 경우(2명), 진위 여부, 광우병의 발생, 수입 약품에 대한 불신감 등 약품의 안정성에 대한 불신감을 나타낸 경우(3명), 녹

용 복용 방법에 대한 무지를 보인 경우(1명)가 있었다.

참 고 문 헌

1. 李尙仁 : 本草學. 서울, 學林社. P145
2. 俞太燮 外 : 虛弱兒에 대한 文獻的 考察. 서울,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4(1):67-78, 1990.
3. 鄭宰煥 : 鹿茸 및 補兒湯 加 鹿茸이 어린 흰쥐의 학습과 기억에 미치는 영향. 서울,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4. 禹周始 · 黃義完 : 調胃升清湯이 흰쥐의 방사형 미로 학습과 기억에 미치는 영향. 서울,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5. 李雄錫 · 黃義完 : 調胃升清湯이 모델 백쥐의 학습과 기억에 미치는 영향. 서울,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6. 姜賢根 : 香附子八物湯이 모델 백쥐의 학습과 기억에 미치는 영향. 서울,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7. 崔赫鏞 外 : 발열 상태에서 투여된 녹용과 소아보혈탕 가 녹용이 발열 양상의 변화 및 학습과 기억에 미치는 영향. 서울,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14(1):10-38, 2000.
8. 吳何錫 · 金璋顯 : 부위별 녹용이 흑색종 유발 생쥐의 종양억제와 면역기능에 미치는 영향. 서울,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14(1):39-77, 2000.
9. 金祺峰 · 金璋顯 : 소아 기억에 관한 한의학적 고찰. 서울,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14(1):169-182, 2000
10. 崔允禎 · 金璋顯 : 소아의 한약복용에 관한 문현적 고찰. 서울,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8(1): 1994
11. 金璋顯 : 성장장애에 관한 임상적 연구(I). 서울, 대한 한방소아과 학회지12(1):1998
12. 이동현 · 金德坤 : 성장장애를 주소로 내원한 환아의 치료결과에 대한 고찰. 서울, 대한 한방소아과 학회지12(1):1998
13. 金璋顯 : 지역증진에 관한 방법론적 연구. 서울, 대한 한방소아과 학회지13(2):1999
14. 金德坤 外 : 한방소아과학 강의록. 서울, 전국 한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편, P681
15. 李勳 外 : 허약아클리닉에 내원한 患兒들에 대한 임상적 연구. 서울, 대한 한방소아과 학회지14(2):132-135 2000
16. 裴元植: 「소아에 녹용을 먹이면 바보가 된다」는 설에 대하여. 서울, 대한 한방소아과 학회지 3(1):1989 73-74
17. 江育仁 主編: 中醫兒科. 인민위생출판사. 북경. 1988 P7
18. 王伯岳 江育仁 主編: 중의아과학. 정담. 서울, 1994 P36.37.84.85.
19. 金德坤 外: 동의소아과 임상실습. 서울, 경희 대학교 출판국. 1998 P25
20. 金德坤. 김영신. 정규만: 허약아의 임상적 고찰. 대한 한방소아과 학회지 3(1):1989. 79 ~83
21. 신원규 · 이재원 · 배연엽 · 金德坤: 小兒 虛證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 한방소아과 학회지 4(1):1990 113~119
22. 吳何錫 · 金璋顯: 소아과 외래환자의 주소증에 관한 고찰. 대한 한방소아과 학회지:1998 63~76.
23. 이진용 · 정재환 · 金德坤 · 정규만: 소아과 외래환자의 주소증에 관한 고찰. 대한 한방소아과 학회지:1996 201~219.
24. 장규태 · 金璋顯: 성장장애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 한방소아과 학회지 11:1997. 1~35.

설 문 지

M/F

세

Tel

1. 주요증상 유형

2. 주요증상의 치료 전 상태 및 치료 후 상태

주소증	치료 전		치료 후	
	매우 양호		매우 호전	
	양호		호전	
	보통		보통	
	불량		악화	
	매우 불량		매우 악화	

3. 주요증상 이외의 변화

- ① 체중 증가
- ② 신장 증가
- ③ 질병 이환률 감소 및 면역기능 증가
- ④ 지적 능력 및 집중력 향상
- ⑤ 기타:

4. 녹용복용 척수

- ① 만 나이
- ② 7세 이상-5첩
- ③ 기타

5. 녹용에 대한 기대도(복용하기 이전)

- ① 좋을 것으로 기대
- ② 보통
- ③ 별다른 기대 하지 않음

6. 녹용에 대한 만족도

- ① 좋은 편이다
- ② 기대했던 정도이다(보통이다)
- ③ 기대 만큼 좋지 않다.

7. 녹용에 대한 지속적인 호응도

- ① 계절에 2회(봄 가을) 복용
- ② 계절에 1회 복용
- ③ 건강이 나빠지면 복용
- ④ 먹이고 싶지 않다.

8. 기타 녹용에 대한 인식